

WOOD

P L A N E T

자연의 감성을 전하는 선물

10

해외 건축
우드하우스
나무 조각가
해외 아티스트
화보

온전히 나무로 공간을 짓는다는 의미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한선현, 염소마을의 촌장이 되다
자연을 살리는 크라프트 밴딩 퍼니처 작가 Tom Raffield
자, 떠나자 나무 캠핑카 타고

정가 12,000원



09

A large, leafy tree is planted in a white cylindrical planter on a rooftop terrace. The terrace has a wooden railing and a table with chairs. In the background, a cityscape is visible under a vibrant sunset sky with orange and yellow hue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멕시코시티 Casa Lomas Altas

자연 속의 내추럴 하우스

멕시코시티에 1980년에 지어졌던 오래된 집이 멕시코 건축가의 손길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했다. 숲이 깊게 우거진 자연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큰 창을 만들었고 테라스를 넓게 확장해 자연과 더욱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24시간 푸르른 숲으로 눈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집, 그야말로 휴식(休息) 그 자체의 공간이다.

글 김아름 기자 | 사진 Hector Armando Herrera



창들과 연결되는 원목 책장을 만들어 그 위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며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내부에 커다란 창문을 만들어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바깥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80년대 멕시코시티 서부에 지어진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Claudia Lopez Duplan는 건물 내부, 외부 등 공간 전체의 개조와 함께 모든 설비를 바꾸는 작업을 담당했다. Claudia Lopez Duplan은 멕시코 출신으로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사무 공간 등을 설계한 경력이 20년 이상 된 건축가다. 그녀 특유의 감성과 스타일은 인테리어 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집 안에서 숲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광이 실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의 개수와 비율을 늘린 것이다. 집 꼭대기 층에 위치한 개인공간은 특히 넓은 크기의 창문을 만들어 좋은 시야를 확보하도

록 했다. 침실의 창문 프레임은 책장의 역할도 겸할 수 있도록 짜여있어서 공간 확보에도 효율적이며 침실을 더욱 아늑하게 보이도록 한다. 바깥의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욕실에도 큰 창문을 내었다. 식사를 즐기는 공간에도 정면과 옆면에 큰 유리를 만들어 탁 트인 시야를 만들었다.

모든 공간은 제한된 재료의 선택을 통해 통합됐다. 실내건축은 나무 바닥과 대리석을 섞어 사용했으며 부엌의 경우 동일한 색감을 가진 화강암을 사용했다. 실외의 바닥과 벽은 모두 짙은 회색 돌로 덮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바깥 테라스를 통합해 자연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